

지역작가와 작업실 지원정책 밀양 가인예술촌

culture | art

가인초등학교 이름을 딴 '가인예술촌'은 고양이나 창동 스튜디오를 제외한 여타 집단 창작촌에 비하면 복 받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밀양시가 밀양교육청에 임대료를 해 이를 미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양시에서는 1997년 8월 폐교된 옛 가인초등학교를 국내 최초로 재활용해 수준 높은 예술을 선보이는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정형 가인예술촌 총장

예부터 층의와 정철의 고을로 손꼽히는 밀양, 이곳에는 향수와 문화, 예술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인예술촌이 있다. 타지역에 비하면 폐교를 적극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만든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으리 만큼 문화, 예술의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럴 만한 이유는 폐교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인예술촌을 비롯한 미리별민속박물관, 밀양연극촌 등을 통해 문화의 도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다시 되새김하면 가인예술촌은 1996년부터 예향 밀양을 주창하는 밀양시장의 의지를 비롯한 모든 예술인, 밀양 시민 등의 꾸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미술인들의 좋은 문화토양 만들기의 욕구가 합쳐져 탄생되었던 곳이다. 1997년 8월 1일 문을 열어 현재 미술인들의 집단창작 미술촌으로 8명의 작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 대지 2,405평, 작업실, 전시실을 합한 건평 500평의 공간과 운동장은 잔디가 사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곳이며 밀양 얼음골을 가는 길목이라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쉼터의 역할도 하는 곳이다.

가인초등학교 이름을 딴 '가인예술촌'은 고양이나 창동 스튜디오를 제외한 여타 집단 창작촌에 비하면 복 받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밀양시가 밀양교육청에 임대료를 해 이를 미술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양시에서는 1997년 8월 폐교된 옛 가인초등학교를 국내 최초로 재활용해 수준 높은 예술을 선보이는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왼쪽 · 밀양연극촌의 '어름공연예술축제' 무대.
오른쪽
(위) 밀양시립박물관
(아래)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도자기 굽기 체험교실 공방 '핸드메이드'



개관 당시는 밀양에서 태어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미술인 15명의 작가가 입촌하여 작업을 전개했으나, 현재는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작가, 특히 청년작가들이 모여 대작을 중심으로 작업하는 작가를 '심'의 를 통한 입촌작가 선정을 하고 있다. 밀양시에서는 가인예술촌을 통해 수준 높은 지역문화 만들기, 지역인들의 문화욕구 충족, 밀양시의 관광, 문화 차원의 홍보차원, 밀양시의 예술인 증가, 미술체험공간 활용 등의 필요성으로서 가인예술촌의 생성 목적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입주작가들은 가인예술촌을 최대한 문화의 공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어린이들이 생동감 넘치는 '미술교육장'에서 체험학습과 예술가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개관하는 해인 1997년 『하계가족 도자기캠프』를 비롯해 『하계가족 테라코타. 판화캠프(1998)』와 『부산-경남 하계 자연미술 미술캠프(2000)』 『미술교육! 3일간의 체험(2001)』 『부산영재교육(2004)』 그리고 매년 『부산-경남 하계 자연미술학교』 『부산-경남 초등미술교사 연수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예술의 대중화, 미술의 대중화 작업 일환으로는 <개관기념 한-일 교류전(1997)> '입촌작가 중 젊은 작가들이 실험적인 평면 입체작품을

함께 보여주는 <M.P.L전(1998)> <Slow Slow Quick Quick(2002)> 등과 매월 작가들의 전시가 가인예술촌에서 열렸으며,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2003. 일본 요코하마 미술관)>, <국내학술대회로는 '현대미술에서 미디어 아트의 현황과 과제(1999)' '한국 현대미술의 쟁점(2000)' '한국 대학미술 교육의 개혁 방향성 모색(2001)' 등과 국제학술대회는 '현대미술과 전시기획(2001)' '국제학술 세미나 '현대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2002)' '국제학술 심포지엄 "아시아 현대미술의 현장과 지향점"(2002)' 등으로 최대한 지역민에게 다가갔다. 지역 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는 입주작가를 선호하는 터라 이런 사업은 어느 창작촌이나 비슷하리라 본다. 그러나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작가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작업에 전념할 시간의 손실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부딪치고 있다.

사실, 가인예술촌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타 열악한 창작촌이나 작업공간이 없어 전전공공하는 작가들은 그래도 복 받은 것이라고, 또 지원이 없는 것만큼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 무상 임대 및 시설관리를 대안으로 대부분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인은 교육청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예술촌을 밀양시에서 임대하여 우리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니 폐교 감정가격의 5%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 여타 창작촌에 비하면 밀양시가 예술촌의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사지원에 따르는 밀양시의 지원으로는 내 기억으로 거의 없었다. 처음 1997년 가인예술촌이라는 명칭으로 문을 열 때만 일종의 지원, 즉 환경정비와 공간구성, 소정의 리셉션 경비가 지원 전부라고 봐야 한다. 그 이후로는 예산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깐.

지난 전국 창작촌 워크숍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창동이나 고양의 집단 창작촌을 제외한 여타 지역 창작촌과 같이 타 창작촌의 지원문제에 관해 가인예술촌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가인예술촌을 비롯한 지역의 창작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작가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어디든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최측의 간섭이나 약간의 구속은 따르기 마련이다. 일종의 주최측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있고 이에 따르는 요구는 작가들에겐 기쁘게 받아들이는 요구가 된다. 그러나 창작의 시간을 앗아갈 만치의 시간과 노동을 요구한다면 작가들

가인예술촌의 경우
대다수의 작가는 대학강의와 작업을 병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시간도 창작촌에서 거주하는 작가에 비하면 많은 편도 아니며, 강의료 역시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인예술촌의 환경적 열세를 보면, 우선 예술촌의 예산은 자체경비를 마련하여 가인을 꾸려 나가고 있다. 매월 8명의 작가들이 5만 원을 출비하여 전기, 전화비 등의 경비로 지출하고 나면 제로(zero) 상태가 된다. 그렇다고 작가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가인예술촌의 경우 대다수의 작가는 대학강의와 작업을 병행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시간도 창작촌에서 거주하는 작가에 비하면 많은 편도 아니며, 강의료 역시 누구나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꾸미는 사업이 수익사업이다. 가인예술촌이라는 공간을 방학 중에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 일명 사용료다. 1박 이상 예술촌에서 캠프를 할 경우에만 인당 천 원 ~천오백 원을 받는 것이 수익사업의 전부이다. 묘하게도 이때 받은 임대비는 행사가 끝날 쯤이면 화장실이나 전기 등에서 꼭 고장이 난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리비와 작가들이 모여 몇 번의 대청소를 하고, 같이 자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나면 켐셈이 된다. 그러나 이에 반면 이 기간에는 작가들은 작업실을 개방, 예술촌 환경관리와 캠프

2005 가인예술촌 정기사업 현황

| 사업 | 사업기간 | 참석예상인원 | 지원내역 | 장소 | 비고 |
|--------------------|---------------------|--------|--------|---------------------|------|
| 부모와 함께하는 미술 축제 | 2005년 5월 22일(일요일) | 2,000명 | 장소, 시상 | 가인예술촌 및 가인일원 | 자체행사 |
| 2005년 가인예술촌 정기 전시회 | 2005. 7. 18 - 8. 30 | 입주작가전원 | 전시 | 가인예술촌, 밀양문화의 집, 문화원 | 자체행사 |
| 밀양청년작가상 수여 | 2005. 12 | 1명 | 시상금 | 가인예술촌 | 자체행사 |
| 중등미술 캠프 | 여름방학 중 (4박5일) | 50명 | 장소, 교육 | 가인예술촌 | 자체행사 |
| 가족 캠프 | 여름방학 중 (2박3일) | 100명 | 장소, 교육 | 가인예술촌 | 자체행사 |
| 미술대안학교 | 여름방학 중 (3박4일) | 80명 | 장소, 교육 | 가인예술촌 | 자체행사 |
| 미술영재교육 | 여름방학 중 (2박3일) | 40명 | 장소, 교육 | 가인예술촌 | 위탁교육 |
| 시민과 함께하는 야외 스케치 | 2005. 10월 경(당일) | 200명 | 장소, 교육 | 추후선정 | 자체행사 |

프 프로그램에 적절히 동참하다 보니 작업도 잘 되지 않으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된다. 이런 와중에도 광주비엔날레나 부산비엔날레 등 국제전에 참가하는 작가와 대량의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나는 가인의 작가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인예술촌이 해야 할 일은 여럿 남아 있다. 금년 사업은 자체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사업 역시 밀양의 적극적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있다. 더 이상 작가에게 시간과 호주머니 비우기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5 가인예술촌 정기사업계획은 <도표>와 같이 8건 외에 문화관광부 및 여타 공모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사업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장기 계획으로는 더 호주머니를 트는 한이 있어도 홈페이지는 꼭 만들 예정이다. 그러면서 전국,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공간, 작업공간 등 시설 확충을 통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외 작가들에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국제교류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산 지원에 따라 어느 정도 추진될지 문제이지만 이들의 프로그램에 따른 구상은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도 가인작가들에게는 미래의 불안함으로 다가온다. 언제까지 예술촌에서 작업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의 불안함이다. 예술촌 작가들이 자체 임대한 것이 아닌 만큼 밀양시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공간을 비워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밀양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가인예술촌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장르의 인원을 더 충원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의 상의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통지였다.


밀양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리모델링이나 인원 충원 등 복안에 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가인예술촌의 1기가 끝나고 2기

장기 계획으로는 더 호주머니를 트는 한이 있어도 홈페이지는 꼭 만들 예정이다. 그러면서 전국,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의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인지, 어쩌면 이것이 최후통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쓸쓸한 기분이 든다.

마지막으로 집단 창작촌의 나아갈 길은 당연히 작업위주의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든 민간이든 메세나 후원을 앞선하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의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작년 문화관광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사업이다. 밀양시에서는 예술촌 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지역민의 문화육구 충족, 밀양시의 관광자원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반면 예산 지원이 없으니 작가에게는 힘겨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업에 전업하면서 예술의 대중화를 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기대는 것이다.

가인예술촌을 비롯한 지역의 집단 창작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또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도시와 지역의 교량적 역할, 체험활동, 지역인의 문화예술 교양 확대 등등은 민·관에서 꾸며준다면, 연중 사업에 관한 구상이 필요 없는 예술촌, 작가들이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의 예술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밀양예술인촌

